

백엔드 데브코스 4기 3차 프로젝트 피어리뷰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름	김영주
리뷰 인원	7
과정명	프로그래머스 데브코스: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
리뷰 기간	2023.10.12 ~ 2023.12.07

읽기 전 유의해주세요

- 모든 내용은 직접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일부 정성적인 내용은 더 나은 내용 전달을 위해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데브코스 생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읽고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누가 나서서 얘기해주지 못했던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진단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춰졌구나”
- 타인의 의견을 품고, 수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어른’과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어리뷰 결과

1. 기술 역량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5	2	0	0	0

2. 협업 스킬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7	0	0	0	0

3. 문제 해결 능력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7	0	0	0	0

4. 자기 주도 학습 태도

5 - 탁월	4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곤란
6	1	0	0	0

5.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잘 이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 기여하였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0	0	0	0

6. 프로젝트를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며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	0	0
---	---	---	---	---

7.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	0	0

8.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거나 공유하는것에 적극적이었나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	0	0

9.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 개발자인가요?

5 - 아주 그렇다	4 - 그렇다	3 - 그런 편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	0	0

10. 함께한 프로젝트 경험(장문형 답변)

팀장으로써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상당했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신뢰감이 느껴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개발을 대하는 자세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할 일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잠을 포기해서라도 다 끝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번 개선해나가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팀장으로써 정말 모범적이고 존경스러운 팀원이었습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1위일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기획과 프론트와 백엔드의 팀 운영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주님을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만 선택해보자면 '책임감' 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팀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자처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살다보면 유난히 책임감이 강해서 팀의 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런 면이 강하셨습니다. 함께여서 좋았고, 감사했어요.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점도 영주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력이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해결능력과 성장성만큼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주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팀적인 성장 활동을 통해, 영주님 본인도 성장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주님은 본인의 가치관이 매우 확고하고, 동시에 리더쉽과 능력이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 팀의 문화도 영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영주님의 성향은 매력적이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제가,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소속된 공동체에 기여하는게 인생의 큰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주님이 자신의 가치관을 팀 문화에 전이시키는 방식도 우아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꾸준히 가치관을 표현하셨죠. 심지어 그 가치관이 매력적이니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팀의 문화가 백 퍼센트 저의 가치관에 부합했느냐고 묻는다면 (늘 그렇듯이)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끔씩 반대되는 의견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매 번 의견을 표현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가 더 크겠지만, 뻘히 팀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주님이 앞 날에 또 다시 팀장이 되실 수도 있고, 저와 같은 팀원을 만날 수도 있으니, 좀 더 예민하게 다른 팀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팀의 가치관에 골고루 반영하는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문화를 좋아했고 누구라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체 팀장으로서 팀의 방향을 잘 정해주고, 문서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소프트 스킬 또한 굉장히 뛰어난 팀원입니다.

팀 전체의 문서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형식적인 문서화가 아닌 실제로 팀에 필요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시고 정리해 팀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프론트엔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려고 하고, 불가능한 요구는 왜 이게 불가능한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점이 협업하기 좋았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프론트, 백엔드엔드 둘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팀원입니다. 소통능력도 탁월합니다. 기획 과정에서도 가장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기획 과정에서부터 스크럼, 회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문서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문제인식능력도 좋았고 백엔드에서도 처음 사용해보는 기술이었는데 빠르고 완성도있게 개발해주었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과 기능을 추가하려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과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바탕으로 전체 스크럼 회의를 주도하였습니다.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협업하는 대상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주셔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